

정읍 무성서원 일대 '태산 선비원' 조성

〈세계유산 등재 유력〉

4만2천여㎡ 부지 선비체험관·한옥체험관·저잣거리 마련
신라 말기 최치원 숨결 깃들어... 호남 선비문화 체험 교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정읍시 무성서원 일대에 선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신라 시대 문장가인 최치원의 숨결이 어린 무성서원 인근에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태산 선비원'을 만들 예정이다.

200억원가량이 투입될 이 사업은 오는 7월 전북도의 투자심사를 받는다.

선비원은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무성서원 인근 4만2492㎡ 부지에 조성되며 선비체험관과 한옥체험관, 저잣거리 등이 들어선다.

선비체험관은 청소년과 성인이 선비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한옥 체험관은 전통한옥으로 만든 숙박 시설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태산 선비원이라는 이름은 통일신라 말기 유학자인 최치원이 지금의 정읍시 칠보

·태인·산내면 일대를 돌보는 태산 군수로 재임하며 쌓은 공적을 기리기 위해 조선 성종 때(1483년) 건립된 태산사에서 따왔다.

태산사는 이후 숙종 22년(1696년)에 사액(임금이 이름을 지어주고 서적, 노비, 토지 등을 하사하는 일)을 받아 무성서원이 됐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살아 남은 전국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로, 1968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며 "세계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호남의 선비문화를 교육하고 아동의 도산서원 규모로 키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한 가운데 정읍시가 일대에 선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읍시 제공>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정읍(주)삼호유황오리 협약 장애인 복지기금·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가 최근 정읍지역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와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기금을 공동 조성하고 농축산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사업과 마

케팅,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 공동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출자해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개량조개' 65만마리 방류

장호·광승해역 총 60ha... 사라진 대표 패류종 증식 기대

고창군은 사라진 개량조개를 되살리기 위해 '개량조개' 65만마리를 방류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

이번 방류는 상하면 장호와 해리면 광승해역 총 60ha에 어선 5척, 어촌계원 20명과 관계기관 5명 등이 참여해 진행했다.

개량조개는 해방 후 부족한 식량을 대체

할 수 있는 주요 음식으로 활용돼 '해방조개'라고 불리기도 했다.

개량조개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대표 패류종으로 고창해역에 흔히 볼 수 있는 패류였으나 원전 온배수 배출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창 해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패류어종이 됐다.

이번 방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신현석)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투자해 연안해역의 주꾸미 자원량을 늘리는 '주꾸미 특화형 바다목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방류된 개량조개가 고창해역에 잘 적응하면 6월경 산란할 예정이고 자연적으로 증식을 반복하다보면 고창의 대표적인 패류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드론축구협회-모형항공협회 드론축구 활성화 MOU 체결

대한 드론축구협회와 한국모형항공협회가 드론 축구의 최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6년 최첨단 탄소 소재와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 기술을 개발한 전주시는 지난해 대한 드론축구협회를 공식 출범했다. 협회장은 김승수 전주 시장이 맡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모형항공협회는 드론 축구 분과를 설치하고, 전주시는 드론 축구 전문 인력 양성과 선수 발굴·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국내외 드론 축구대회를 공동으로 열거나 모형항공 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시 시범경기로 드론 축구 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년 제1회 세계드론월드컵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전주시는 앞서 한국모형항공협회와 함께 국제항공연맹(FAI) 모형항공기위원회의 드론 축구 규정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FAI 주최의 '드론 레이싱 대륙 간 마스터스 국제대회'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 첫 드론 축구 국제대회 시범경기가 열린다.

110여개국이 가입한 FAI는 1905년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섬진강 유채꽃 경관축제' 연다

18~26일 대강면 6만여㎡ 꽃밭서 걷기대회 등 다채

남원시가 섬진강 길을 따라 펼쳐진 유채꽃을 만끽하는 '섬진강 유채꽃 농업경관축제'를 18일부터 26일까지 연다.

축제에서는 5km 길이의 유채꽃밭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섬진강 길 걷기', 왕복 최대 54km의 섬진강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섬진강 꽃길 라이딩 대회', '유채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이 진행된다.

연날리기, 바람개비 돌리기, 민속놀

이, 섬진강 사진전 등도 즐길 수 있다. 행사가 펼쳐지는 유채꽃밭은 남원시 대강면 섬진강 주변 6만여㎡에 조성된 것으로, 최근 꽃이 만개하면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노란 유채꽃 물결이 섬진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